

‘최초 시행’ 광주시 정책들, 전국 모델로 확산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AI당지기·공공심야어린이병원 주목
정은경 장관,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광주 통합돌봄’ 현장 살펴
시민생활밀착 정책 발굴... 전국 벤치마킹 ‘광주형 모델’ 자리매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부터 AI 당지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성폭력 피해자 새출발 응원금에 이르기까지 광주시가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 노력들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복지·의료·노동·안전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친 ‘전국 최초’ 혁신적 정책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AI 당지기’ 도입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야간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24일 수

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이는 유연근무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수원시, 경북도,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아 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발전해 의료, 요양, 주거, 식사, 이동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



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6일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고도 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는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필수 의료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는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소상공

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밖에 ▲틈새돌봄 사책인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보행 안전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새 출발 응원금’ 사업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비용 지원사업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기자

“아이 양육에 필요한 최고 서비스” 부모들 대만족 동구형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2년여 간 990여 명 이용

#사례1 맞벌이 워킹맘 A씨는 아이가 놀다 넘어져 턱이 찢겨 봉합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씨의 회사와 집 사이 거리가 멀어 직접 데려가기에는 병원이 문 닫을 시간이라 급하게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을 신청했다. A씨는 “4살짜리 아이를 맡기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는데 전담 선생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울지 않고 잘 다녔다는 것 같다”면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동구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발चे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례2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 B씨는 최근 자녀가 심리상담 치료를 시작했으나 매번 시간 내서 함께 가기가 쉽지 않아 SNS 홍보를 통해 보았던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했다. B씨는 “아이가 상담받을 때마다 전담 선생님이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함께 해주셔서 아이가 큰 안정감을 느꼈다”면서 “저 또한 매번 동행하지 못해 느꼈던 미안한 마음을

해당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동 보호부터 진료·귀가까지 전담 요원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돌봄 프로그램이다.

감화시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용 차량으로 돌봄 전담 요원이 직접 방문해 아이와 함께 양육자가 원하는 지역 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복약 방법 등 상세한 정보와 함께 귀가까지 책임진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용 대상은 동구 주민으로 만 4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이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나 진료·약제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므로 회원가입 시 3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동행하지 못해 느꼈던 미안한 마음을 풀 수 있었다. 워킹맘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최고의 서비스”고 전했다.

광주 동구(정장 임택)가 지난 2023년 4월 첫발을 내디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가 지난 2년여 간 990여 명의 보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실제로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를 경험한 보호자들의 이용 후기 중 일부다.

서비스 이용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전화(☎062-670-0575~6) 또는 광주아이킴 누리집(www.광주아이킴.kr)에서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하면 된다.

/오철수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자매도시인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와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화합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추진한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는 광주 북구와 대구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매도시 청소년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박 2일간 북구와 달서구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4~6학년으

북구, 대구 달서구와 함께한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성료

각 지역 역사·문화 명소 탐방 및 친목 활동

로 구성된 총 80명(북구 40명, 달서구 40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행사 첫날인 7일에는 두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 북구와 달서구로 각각 이동해 ▲국립5·18민주묘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달서시지정탐방센터 ▲달서선사관 등 각 지역의 역사·문화 명소 탐방과 저녁에 펼쳐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우정을 쌓았다.

또한 첫날 일정 중에는 문화교류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해당 지역 구정을 방문하거나 구청장과 직접 만나 격려 인사, 기념품 전달, 기념사진 촬영 등을 하며 환대받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청소년들이 무더운 날씨를 잊을 수 있도록 나주중흥골드스파와 대구스파밸리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겼으며 이후 숙소로 복귀해 행사 참여 소감문을 작성한 뒤 안전하게 귀가했다.

이번 문화교류에 참여한 달서구 청소년 A군은 “광주는 태어나서 처음 방문했는데 이를 동안 좋은 친구도 사귀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며 “특히 국립 5·18민주묘지에 방문해 역사적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값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북구는 청소년들이 작성한 소감문을 확인한 뒤 이를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문화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진월동에 조성한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이 초·중학생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대교교통을 이용해 이곳 시설을 방문하는 아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은 지난 6월 4일 문을 연 뒤부터 초·중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소 2달간 이용객 누적 수는 2,400명

광주 남구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 개소 2개월

“소문 듣고서 버스 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을 활짝 넓혀서다.

하루 평균 53명이 이용 중이고, 토요일인 주말에는 평균 90명 가량이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숲 인근에 있는 효덕초등학교와 진제초등학교, 진남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진남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방림초등학교와 효천초등학교 학생들도 시내버스를 타고 이곳을 찾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이 큰 호응을 얻는 이유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요즘처럼 뽀뽀위가 지속되는 기상 여건에서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친구들과 자유분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다.

현재 이곳에는 노래방 기기와 인생네트 사인 부스, 닌텐도를 비롯한 PC 기기,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락방과 야외 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입소문도 그만큼 빨리 퍼진 것 같다”면서 “방과 후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놀이를 하면서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서구, ‘장사의 신 아카데미’ 3기 운영

골목형상점이 연계 맞춤형교육... 상권 리더 양성 기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인 ‘서구 장사의 신(神) 아카데미’ 제3기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형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김유진 외식업 컨설턴트를 초청해 총 7회에 걸쳐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매출 증대를 위한 상권 분석 및 운영 전략 ▲SNS 홍보 마케팅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서구는 이번 3기 과정에서 골목형상점가와 연계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용성 높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상권 리더로서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2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3기 참여 멘티에게

경영 전략과 실전 노하우를 전파하고 수료자 간 관계를 통한 상권 네트워크 확장도 함께 추진한다. 1~2기 수료생들은 교육 이후 일평균 매출과 고객 수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참여 대상은 광주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청순 4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네이버 신청 페이지(http://m.site.naver.com/1NSAF) 또는 전자우편(vestigek@korea.kr)을 통해 가능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골목경제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이 성장해야 서구도 활력을 되찾는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